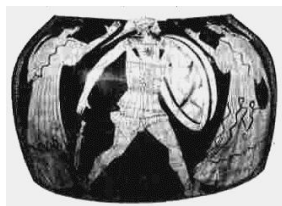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인의 정의관에 대하여

이호재

1999년 11월





목 차

| | |
|-------------------------------|-----------|
| 1 서론 | 5 |
| 2 초기 그리스인의 정의관 | 7 |
| 1 호메로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 7 |
| 호메로스 시대의 정의 | 7 |
| 수치문화와 죄의식문화 | 7 |
| 2 규범의 기원으로서의 티메 | 8 |
| 3 소포클레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 9 |
| 4 헤로도토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 10 |
| 3 페르시아 전쟁과 민주정의 성립 | 13 |
| 1 호메로스 시대의 덕의 기준 | 13 |
| 2 변치 않는 덕목, 용기 | 14 |
| 3 참정권의 조건 | 15 |

| | | |
|---|--------------------------|-----------|
| 4 | 참정권의 확대 | 16 |
| 4 | 아테나이의 급진민주정과 제국주의 | 19 |
| 1 | 급진민주정과 티메의 한계 | 19 |
| 2 | 제국주의와 티메의 변질 | 20 |
| 5 | 결론 | 23 |

1

서론

그리스인들은 異民族을 바르바로이(βαρβαροι)라고 불렀다. 이 말은 barbarian의 어원이지만 동굴에 살며 날고기를 먹는 인종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혐오나 경멸의 뜻을 담고 있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어를 말하는 대신 '바르바르'와 같은 소리를 내는 인간을 말한다.

그리스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諸民族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란 그리스적 생활과 사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적 생활과 사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인의 언명에서 극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바르바로이이는 노예이나 우리는 자유인이다.” (Kitto, 1957, 9 쪽)

자유인이란 것이 반드시 共和라는 政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인들이 스스로 지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정체를 유지했던 그리스인들은 적어도 국가의 成員이었지 被統治者는 아니었으며 정부의 諸原則도 공

知되어 있었다. 전제정치는 그리스인의 바로 이러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神으로부터 유래하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왕의 사적인 의지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정치였으며, 왕 스스로가 신이었기 때문에 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정치였고 신하는 이러한 군주의 노예였던 것이다.(Kitto, 1957, 9 쪽)

그리스인들이 동방의 전제국가의 臣民들과는 달리 스스로 자유인이라 말하면서 세계사적 측면에서 보아도 오히려 희귀하고 독특한 그리스적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갖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治水와 灌溉 때문에 강력한 전제군주정이 성립되었다고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설명은 그 逆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증이 되지 못 한다. 치수사업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사회계약적 권한의 위임으로 왕권이 확립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말미암아 치수사업이 가능해졌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전자가 사실이라면 그리스 세계의 독특함에 대한 설명으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가 사실이라면 왕권 성립의 원인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리스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까닭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설명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부터 그리스 세계를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소박한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명쾌한 설명이 되지 못 한다. 이는 말을 늘려놓은 문제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진실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다른 민족은 전제정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일인통치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곧바로 뛰어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의관을 고찰하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으며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체를 형성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초기 그리스인의 정의관

1 호메로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호메로스 시대의 정의

우리는 호메로스 시대의 정의를 논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 초기의 문헌은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늘상 그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해석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확신하며 단정짓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호메로스의 두 작품 세계만을 통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추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러 자료와의 전후관계의 맥락을 짚어내어 보다 신뢰할만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수치문화와 죄의식문화

호메로스 시대의 미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의 문학사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접근해볼 수 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와의 전쟁 중에 얻게된 아킬레우스의 아름다운 여자 노예 브리세이스를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자 아킬레스는 격분하여 그와 싸우려다 아테네 여신의 만류로 그대를 포기하고 대신 일체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다. 헬렌이라는 여인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쟁 중에 여자 노예로 삼게 된 피정복민을 갖고 장수끼리 싸우는 것도 언뜻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호메로스, 1989)

도즈(Dodds)에 의하면 그리스인들은 수치문화(shame-culture)에서 죄의식 문화(guilty-culture)로 이행해갔다고 한다. 수치문화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 주된 윤리 의식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문화를 말하며, 죄의식문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질렀을 때 갖는 죄책감이 질서에 거스르는 행위들을 예방하도록 작용하는 문화를 말한다.(Lloyd-Jones, 1983, 2 쪽)

수치문화 사회 내에서는 당연히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계끔 하는 동인이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자신이 해낸 훌륭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된다. 그리스인들은 그 보상을 가리켜 티메(τιμη)라고 불렀다.(Lloyd-Jones, 1983, 12 쪽)

2 규범의 기원으로서의 티메

티메는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의미했다. 그것은 신들에게도 있었는데, 인간이 신에게 받쳐야 할 것을 받치지 않을 경우에 그 인간은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아폴론이 디오메데스를 트로이의 성벽에서 떠밀면서 ‘불사의 신들인 종족과 땅 위를 걷는 인간의 종족은 결코 같아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과 인간의 몫이 달리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Lloyd-Jones, 1983)

Norm의 어원인 노모스(νομος)는 본래 목초지를 의미했다. 그것이 뒤에 가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초지의 경계를 벗어나 타인의 목초지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곧 정립된 질서이자 규범이었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관습이자 법이었다.

관습을 나타내는 말인 디케(δικη)는 정의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었지만 본래 의미로는 그런 뜻이 미약했고, 이 말의 형용사형인 디카이오스(δικαιος)가 규칙

과 관습이 잘 준수됨을 의미하여 다시 이 말로부터 정의와 올바름을 뜻하는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

정의에 관계된 이와 같은 말들의 유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그리스인들의 질서 개념은 각각의 신과 인간이 자기의 온당한 몫을 받는 것이었으며, 정의로움은 그와 같이 정립된 질서의 준수를 의미했다.(Lloyd-Jones, 1983)

3 소포클레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우리는 여기에서 경계를 엄수하는 것이 정의라면 경계 자체가 불공정하게 그어졌을 경우에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듯 ‘정의란 强者의 便益’에 불과하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리스적 사유의 기원 만큼이나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서 살피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인들의 정의관의 타당성을 논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선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해도 금속기라는 생산 도구의 발명이 생산력을 현저하게 증대시키며 이와 더불어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생겨난 분업의 형태가 공동체 양식을 해체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분화를 일으켰으리라는 앵겔스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한 가설적 해명으로 삼아도 무방할 듯하다.(앵겔스, 1989) 왜냐하면 생산 도구의 발명과 보급 자체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차별성이 있다는 관념은 더 노력한 자가 더 나은 성취를 얻을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리라는 의식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떠나고 난 뒤 테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자신의 두 형제들에게 분노하여 신의 저주를 내리는데, 그의 소원대로 두 형제는 서로 싸우다 죽게 된다. 신이 청원자인 오이디푸스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다.(소포클레스, 1998) 신은 대개 청원자의 소원을, 그것이 복수이든 승리이든, 들어주기 마련이지만 그 소원을 결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의 후예이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신은 결코 도움을 주지 않으며 또한 모든 것을 신에게만 맡길 수 없고 청원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4 헤로도토스에게서 나타나는 정의관

별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내려진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아끼는 아들 아튀스가 돼지 사냥에 나섰다가 공교롭게도 그와 함께 나선, 자기가 정화시켜주고 받아준 살인자였던 아드라스토스에 의해 죽게 되자 탄식하며 세 가지 이름 제우를 부른다. 크로이소스가 아드라스토스를 정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淨化를 의미하는 카타르시오스(καθαρισιος)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그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가정과 접대를 의미하는 에피스티오스(ἐπιστιος)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동료애를 의미하는 에타이레이오스(ἐταιρηιος)라는 이름으로 신을 부른다.(헤로도토스, 1993) 이 세 이름은 제우스의 별명이며, 이것들이 곧 제우스가 주관하는 덕목들이며 인간 세계의 질서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크로이소스는 소위 金權政이라 불리우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개정해주기를 요구하는 아테나이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자 여행을 떠나온 솔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내심 자기라는 대답을 듣기를 바라면서, 누구인가 거듭 물으며 드리낸 오만(휘브리스, ὑβρις)으로 인해 결국 이 세 가지 이름의 신인 제우스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응징(네메시스, νημεσις)을 당하여 아들을 잃게 된다.

그 뒤 크로이소스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미디어와 전쟁을 벌이다가 미디어의 왕 퀴로스에게 붙잡혀 화형을 당하기에 이른다. 이 때 크로이소스는 ‘신은 스스로를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간을 질투한다’는 솔론의 말을 상기하고 불이 붙은 나뭇더미 위에서 솔론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이에 호기심을 갖게 된 퀴로스가 그 자초지종을 물어 답을 듣고는 불을 끄라고 명령을 내리나 이미 불길의 너무 거세게 타올라 크로이소스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신을 정의하는 자를 신이 보살핀다’는 믿음대로 크로이소스는 신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살아나게 된다. 여기에서 크로이소스의 불행은 끝나고 그는 정화된다. 이를 보고 감동한 퀴로스는 크로이소스를 평생 곁에 두고 그 교훈을 배우며 함께 지낸다.(헤로도토스, 1993) 이와 같은 불행은 오만의 죄를 범한 크로이소스가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의 몫이었다.

호메로스에게서는 헤로도토스의 이와 같은 오만(휘브리스)과 응징(네메시스)

라는 관념이 나타나지 않지만, 티메를 질서의 주된 요소로 본다는 점은 양쪽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의 몫을 지키고 그 경계를 넘어 남의 몫에 침범하지 않는 것, 내 몫 이상을 찾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이다.

하지만 제우스가 수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의가 트로이 전쟁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라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왜냐하면 트로이 전쟁은 도리아인의 이주가 있기 전인 기원 전 13 세기로 추정되며, 제우스는 도리아인의 침입과 더불어 전래된 도리아인의 신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제우스의 복잡하고 문란하기까지 한 혈연관계가 도리아인의 정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종교적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사회 통랍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낯선 이방인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지 감시하는 ‘에타이레이오스’ 신의 이름 때문에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정의는 트로이 전쟁 때부터가 아닌 그 뒤 암흑시대를 거쳐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를 집대성한 기원 전 8 세기 경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크로이소스의 5 대 조상이라는 기게스의 이야기만 보아도 이러한 정의관이 성립된 시기가 대체로 이 때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디아의 왕 칸다올레스는 왕비의 아름다운 몸매를 다른 이들에게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나머지 측근인 기게스에게 밤에 왕의 침실에 몰래 들어와 왕비의 알몸을 엿보라고 권유한다. 이에 기게스는 크게 당황하며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인들의 말씀 중에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것만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헤로도토스, 1993)

물론 이 이야기도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헤로도토스가 후대에 구전된 것을 글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 자신의 개인적 윤리 의식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티메觀이라는 것이, 순전히 헤로도토스가 활동하였던 기원 전 5 세기경이라 해도, 그것의 초기 성립 시기의 여부를 떠나 호메로스로부터의 일관된 흐름으로 파악해도 좋을 것이다. 참으로 의문시해볼만한 것은 이런 관념이 그리스 세계에서 일반적인 아니라 헤로도토스와 같은 몇몇 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의 그리인들이 남긴 이런 종류의 문헌 이외에

도 그리스에서 벌어진 전쟁과 정치 발전의 과정에서 그런 정의관이 작용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것은 아테나이의 정체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어나가는 동안 참정권이 귀족 이외에 평민에게로 확대되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

페르시아 전쟁과 민주정의 성립

1 호메로스 시대의 덕의 기준

일리아드와 같은 서사시에서 항상 예찬되는 것은 용기였다. 아크로폴리스의 용도가 성채라는 점에서 폴리스가 성립되어 나가는 동안 얼마나 빈번하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싸움이 잦은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며 중시되는 사람은 戰士이다. 용맹은 전사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추앙 받는 명예로운 것이었다. 용기는 서사시에서 늘 찬미되었다. 용기 뿐만 아니라 서사시에서 찬미되는 모든 것은 좋음과 아름다움의 기준이자 본보기였다. ‘발빠른 아킬레우스’, ‘지혜로운 오뒷세우스’, ‘아름다운 페넬로페’ 같은 修辭는 사람들이 숭양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의 준거가 될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혼계하는, 서사시가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재이자 형식이었다.(슈넬, 1994)

그리스인들이 원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때때로 커다란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자연 현상들은, 그것이 추상적 개념이든 실제적 개념이든, 신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을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속성이 신 그 자체였다. 다시 말해 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곧 신 그 자체였다.(거드리, 1991) 서사시 속의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신들도 인간들이 따라야 할 규준이었다.

그러나 암흑시대가 끝나고 이오니아와 이탈리아 남부 등에 식민 폴리스가 세워지면서 그리스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즈음에는 서사시가 예찬하는 것들이 더 이상 유일하게 본받을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슈넬, 1994) 레스보스 섬의 서정시인 사포는 타인의 판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 주관이 좋다고 판단하는 대상들을 사랑하고 노래했다. 다음을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포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슈넬, 1994, 105 쪽)

어떤 이는 이 어두운 대지 위에서 기병이,
어떤 이는 보병이,
또 다른 이들은 해군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네.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네.

이와 같은 서정시의 등장과 더불어 개성의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신들과 영웅들이 상징하는 미덕을 더이상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야 할 유일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인들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알렉산더의 정복이 있기 전에 진정한 개인주의를 가져보지 못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2 변치 않는 덕목, 용기

이미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동방으로부터 전래된 密集隊(팔랑크스, 팔랑크스)는 重裝步兵이 종횡 8 열 내지 10 열의 사각형 대형을 이루어 싸우는 새로운 전술이었는데, 팔랑크스의 공격 앞에서는 종전의 騎兵이나 弓兵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술의 비중은 갈수록 커졌다.(민석홍·나종일, 1985, 36 쪽)

중장보병은 투구와 청동제 胸甲으로 몸을 보호하고 허리에는 단검을 차고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長劍을 들었다. 오른쪽 사람의 방패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서로 옆사람에게는 밀착하고는 맨 앞 열이 창을 겨누고 뒤의 열들은 창을 세우고 적을 향해 전진하였는데, 싸움이 시작되어 앞 열이 무너지면 그 뒤의 열이 앞으로 나와 싸웠다.(웨일, 1990, 127-134 쪽)

이런 식의 싸움은 병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또한 실제로도 남과 보조를 맞추는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도 일조하였지만(민석홍·나종일, 1985, 37 쪽),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전술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된 것은 용기였다. 적들을 정면에서 마주보며 전진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유발시키기 마련이었고, 병사들이 대오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였다.(휘털, 1990)

플라톤의 대화편 라케스에서, 용기란 무엇인가 묻는 소크라테스에게 장군 출신인 라케스는 싸움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 답한다. 라케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팔랑크스의 병사들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었다

3 참정권의 조건

초기 그리스에서 참정권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전투에 스스로 무장하여 참전할 수 있는 유산계층에 국한되었다. 스스로 무장을 하기 문에 그리스인들에게 兵站 개념이 없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적지에서는 약탈로써 보급을 대신하고 본국 내에서는 부대를 따라다니는 상인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충당해야 했다.(휘털, 1990)

참정권의 기본 개념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러한 봉사는 유산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정권은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단지 재산의 보유 정도만이 참정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병력 동원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從軍을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 역시 병력 동원을 위해 참전을 명예로운 일로 여기도록 이데올로기화한 것인지, 참전을 명예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으로 인해 그런 군사제도가 가능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상비군 제도나 병농일치제와 같은 군사제도는 전제군주제와 같은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 관료제가 발달한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군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조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후자인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또 다시 처음의 물음인,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전제국가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덮어두기로 하고 좌우시간 그리스인들이 참전을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점만 중시해서 보기로 하겠다.

아무튼 참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이와 같은 관념은 ‘티메’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정의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그리스의 군사제도와 정치제도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스인들의 정의관이 투영되고 하층민들도 자신의 몫을 요구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전쟁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었다.

4 참정권의 확대

그리스에 팔랑크스 전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트로이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귀족 중심의 기병전이 주된 전술이었다. 기병전에서 중장보병의 팔랑크스전으로의 변화는 전쟁의 담당층을 귀족에서 중류 이상의 평민층으로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그들이 참정권을 얻어 귀족정을 민주정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민석홍, 1997)

이와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가 동일한 성격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중장보병의 밀집대전술은 이미 기원전 7세기에 나타났으나 6세기 후반에 아테나이에서는 값비싼 청동제 흉갑 대신에 마나 가죽 또는 금속 등의 장점을 살린 가볍고 값싼 복합형의 흉갑이 발명되고 작은 모자 비슷한 헬멧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농촌이나 도시의 中產下層도 自擔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밀집대의 견고성에 기민한 기동성이 첨가되었던 것이다. 마라톤의 승리에 있어 이 ‘달리는 중장보병’의 역할은 컸다.(민석홍, 1997)

그 이후의 페르시아의 재침은 참전의 기회와 참정권의 획득을 모든 아테나이 시민에게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케나이는 데미스토클레스의 건의에 따라 대함대를 건조하고 아테네를 비운 뒤 —당시에 만들어진 배는 모두 200여 척이었고, 1척 당 200명이 탈 수 있었기 때문에—싸울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민을 함대에 동원하였다. 이때 동원된 하층민들이 자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돛줄을 끼우는 나무 못. 뱃전에 솟아있다.과 방석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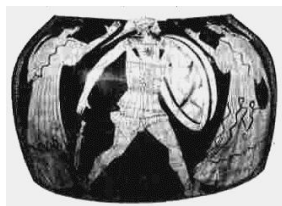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키는 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櫓兵을 담당할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을 요구할 수

있었고 결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때에 페리클레스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민주정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페리클레스는 모든 평민이 집정관(아르콘, ἄρχο)에 선출될 수 있게 하고 민회(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를 최고 의결기구로 만들었다.

그 이전에도 주로 소농들인 하층민들의 정치참여 요구는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이들이 국가에 군사적 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참정권의 확대가 귀족으로부터 일반 하층 평민에 이르기까지는 전술의 변화로 말미암은 바가 크지만 티메의 정의관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민주정으로서의 빠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애시당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부유한 시민이 연극 경연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대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꺼이 후원자가 되었던 관습과 마찬가지로—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재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부의 분배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자신이 기여하거나 성취한 공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만을 유념하기로 하겠다.

이 티메관이 언제나 공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형성된 급진민주정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나이가 패배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테나이인들의 티메관이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는지 발견할 수 있다.



4

아테나이의 급진민주정과 제국주의

1 급진민주정과 티메의 한계

페르시아 전쟁 말년에 아테네는 일군의 다른 폴리스들과 델로스 동맹이라는 政守同盟을 결성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동맹은 해체되지 않았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인의 재침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시일이 흐르면서 아테네는 점차 그 동맹을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해상 제국으로 변모시켜 나갔다. 그리고 아테네는 동맹 기금의 일부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아테네는 다른 모든 동맹국들을 속국의 지위로 전락시켰으며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력으로 진압하여 해군을 장악한 다음 마치 피정복 국가를 대하듯 공납을 강요했다.(번즈, 1994, 144-145 쪽)

이 때에 그 자금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유명한 각종 건축물이 건설되었으며 페이시스트라토스 때부터 시작된 연극 경연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졌다. 또한 페리클레스의 개혁으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생업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예 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노예는 동족을 채무 노예로 삼는 경우보다는 그리스 이외의 이국인을 전쟁이나 약취, 매매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아테네 인구 중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구마다 추산치가 다르지만 대략 30%를 점하고 있었다.(송문현, 1996)

이 정도의 비율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가,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다고 하는 노예제 사회였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리스인들이 노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정의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스인들은 외국인들이(바르바로이) 왕 한 사람 밑에 모두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노예는 지적, 도덕적으로 자유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서로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 마치 육체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낮고 동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낫듯이 이성적인 사고를 결여한 노예도 이성적 부분을 가진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송문현, 1996)

이런 생각은 노예제를 합리화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만 노예에게 노예로서의 몫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노예제가 극대화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식의 논리는 귀족과 평민을 갈라놓는데 또한 기여하였을 것이다. 외국인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정의관을 공정하고 철저히 노예들에게 적용해보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능력의 차별성에서 야기된 티메관은 이에 이르러서 본성의 차별성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 제국주의와 티메의 변질

아테네 시민들은 외국인 출신의 노예 뿐만 아니라 종족의 그리스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인들의 지대한 공로를 이유로 내세워 동맹의 금고를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국가들에게 공납을 요구하며 아테네의 보호를 받는 속국이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스파르타와의 개전 초기에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강한 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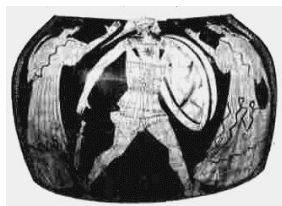
굴복하는 것이 저항하다 몰살을 당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며 중립을 고수하려는 멜로스인들을 종속시키고자 위협한다. 더우기 아테네인들은 힘 있는 자들은 정의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한다.(투퀴디데스, 1995)

그리스인들의 정의관은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능력의 차별성에서 본성과 자격의 차별성으로 변질되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본래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힘과 논리로 대체되었다.

... 우리의 國制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고 全市民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萬人은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개인을 他者보다 우선하여 공직에 임명할 때 그것은 그가 어느 특정한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재능 때문이다. ... 우리에게 있어 각 개인은 그의 사사로운 일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國事에도 관심을 가진다.
... (민석홍, 1997, 68-69 쪽)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전사한 시민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은 민주정치와 폴리스 시민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을 토로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테네 시민들에게만 국한된 모순된 평등이자 정의였다. 실제 아테네 시민들의 정치생활은 그의 연설만큼 충실한 것도 아니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말벌에서 아들 브델뤼클레온은 아버지인 필로클레온이 배심원으로서 법정에서 나가면 주어지는 보상에 재미가 들려 실제 재판에는 아랑곳없이 매일 재판장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에게 집안에만 있을 것을 종용한다. 아버지가 온갖 꾀를 부려 집을 빠져나가려 하자 마침내는 아버지를 위해 집 안에서 우스꽝스런 개 재판까지 열게 된다. 민회에 참석하도록 공무원들이 빨간색 칠이 되어 있는 줄을 길게 늘어 붙잡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대었다는 것으로 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은 단순한 코메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衆愚政으로 타락한 민주정의 실태를 풍자적으로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국주의와 민주정의 타락이라는 길을 거쳐 결국 아테네인들이 처한 운명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굴욕적인 항복 조건이었다. 아테네에서 피라이우스에 이르는 長城을 허물어야 했고 해군을 보유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민석홍, 1997)

아테네인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기여한 공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멸망에 이른 것 역시 그들의 정의관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의 이와 같은 흥망성쇠에 대한 변화의 동인을 헤로도토스는 '휘브리스와 네메시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투퀴디데스는 인간에게는 우연이며 신에게는 필연인 漣(튀케, τυχη)의 작용으로 보면서 신을 결코 초월할 수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조명하였다.(오홍식, 1994) 폴리비오스는 투퀴디데스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운이 더 오래간다고 믿으며 모든 정체가 혼합되어 있는 로마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투퀴디데스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한 가지 정체의 운이 다하고 다음 정체가 순환된다고 믿었다.(오홍식, 1996)

아테네의 몰락은 이들 역사가들의 종교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당대의 폴리스들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명쾌히 설명할 수도 있을 터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퇴폐적 기운을 보고 인간 본성의 탐구에 깊이 몰두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이들 역사가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시인들에 의해 부풀려진 종교적 측면의 정의관을 배제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내 몫을 지키고 내 몫이 아닌 것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티메의 관념은 그리스인들의 실제 생활과 사고를 규제할 만큼 일반적이었다. 그 관념은 그리스 내의 수많은 폴리스가 통일되지 못하고 분립주의를 고수한 점이나 폴리스의 정체가 전제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즉 결코 타인의 지배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민주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아테네인들은 전술의 변화로 말미암아 점점 더 많은 계층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었고 티메관에 따라 그 봉사의 대가로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여 이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 패권을 차지한 아테네인들은 비록 민주정을 확립하고 번영을 구가하였으나 그들의 정의관에 걸맞지 않게 안으로는 노예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우리는 아테네인들이 당시에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인구증가, 식민지 상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무역의 위축 등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테네인들은 그들의 정의를 수호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택하였으며 그것은 결코 피치 못할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힘의 정점에 이르러서는 외부세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그들의 정의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Bibliography

Kitto, H. (1957). *The Greeks*, Penguin Books. Penguin Books.

Lloyd-Jones, H. (1983). *The justice sof Zeu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거드리, M. (1991). 희랍 철학 입문. 종로서적.

민석홍 (1997). 서양사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민석홍·나종일 (1985).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번즈, E. M. (1994). 서양문명의 역사. 소나무.

소포클레스 (1998). 소포클레스. 단국대학교 출판부.

송문현 (1996). 서양고대사강의. 한울.

슈넬, B. (1994). 정신의 발견. 까치.

앵겔스, F. (1989).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오홍식 (1994). 투퀴데디스의 튀케관.

오홍식 (1996). 서양고대사강의. 한울.

투퀴디데스 (1995). 투퀴디데스. 범우사.

헤로도토스 (1993). 헤로도토스. 범우사.

호메로스 (1989). 일리아드·오뒷세이아. 글벗사.

웨일, A.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